

시론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한국경제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 이래로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60년이 넘는 기간 중에 마이너스 성장은 1980년 민주화 과정,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단 3차례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돼 재정 수입과 차입의 격차가 커지고,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경제도 제조업 조립 라인의 해외 이전으로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수 경기는 물가 상승과 구매력 감소로 크게 위축된 상태이고, 자유무역체제의 붕괴와 관세 여파로 주력 업종의 대미 수출은 부진으로 1%대 성장도 버거운 실정에 이르렀다. 대내외적으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트럼프와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15%와 3천500억 달러 제공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원 이상 국채를 발행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하면서 “뿌릴 씨앗(돈)이 부족하다고 발을 묶어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기축통화국가로서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비용 51.5

한국경제의 현실과 성장

% (IMF 2025년 5월 기준)도 우려된다.

한국 경제성장의 초반기는 수요 측면에서 내수 시장의 협소로 국내 소비·투자 수요로만 공급 확대와 총수요를 확장하는데 한계에 다다르면서 중화학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등의 투자로 점차 해외 시장에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60%에 이르고 수출 산업이 확대되면서 원자재 수입으로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이 증가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풍부한 노동공급량과 노동시간, 투자와 자본축적, 통신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생산요소 양의 증가와 더불어 노동의 질(교육 및 훈련)과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총공급 능력을 확대시켜 성장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성장의 엔진을 재현할 만큼 여건이 만만치 않다.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은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키는 인적 자원 투자의 교육과 훈련보다는 함들지 않고 안정적인 취업 위주로 치중해 더딘 수준이다. 기술진보 역시 R&D 투자와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발명의 창업은 힘들고, 이미 활용되는 기술의 상업적인 모방만으로는 선도적인 핵심기술의 혁신이 제약된 상황이다.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소득과 부의 양극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내수 시장에서 중산층의 구매력도 현저하게 줄어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자본 투자는 국내보다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현실이고 그간 자유무역체제에서 누려던 수출도 트럼프 관세 여파로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실정이다. 이런 국내외 경제 여건이 한국경제를 저성장으로 이끌고 있다.

이번 1·2차 민생회복 쿠폰 지급은 재량적

재정지출로 지역화폐 형태의 직접 현금 지급으로 소비수요를 진작시켜 내수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소비진작 재정지출의 재원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 하는 일부 소득세 환급 조치로 소비와 저축을 동시에 유도하고 초고소득층 경우 소득세 인상으로 세수를 충당해야 재정적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은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국내 투자는 법인세 인하보다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생산성과 무관한 업종은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정조달은 세금과 차입(국채발행)에 의한 조달 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은 응익의 원칙(benefit-received principle), 세대 간 형평성, 세금과 부채의 효율성 등에 달려있다. 응익의 원칙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수혜자들이 받는 편익 정도에 의해 세금과 차입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효율성은 초과부담의 문제로 세금은 지출 시점에서 한번 발생하지만 부채 조달은 여러 단계의 낮은 세율로 부과돼 효율성이 우월하다.

이제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총수요 증가의 단계적 처방에 머물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과 신기술의 산업 혁신이다. 이 혁신은 공급 측면에서 노동의 질과 기술 진보에 의한 생산성 제고에서 발생한다. 노동의 생산성 향상은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과학기술의 교육시스템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술 진보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기술에서 인공지능(AI) 활용 기술로 이동하는 현실에서 시스템반도체의 설계(팹리스), 파운드리(위탁생산), 패키징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社說

사회적 비용 추가 호남고속도 확장 국비 확대는 당연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 사업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난 것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방음터널 12개소가 신규 반영된 때문이다. 2021년 방음벽 높이와 터널 설치 관련 권고 방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약 3천4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당 사업은 2012년 최초 논의 당시 국비 80%, 지방비 20%로 협의됐으나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 요구와 재논의를 통해 최종 50%씩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이후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2천762억원으로 잡힌 총예산이 2023년 설계에서 7천900억원 규모로 증액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소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서 기인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모두 떠안겼다. 당연히 잘못됐다. 이대로면 해마다 1천억원을 감당해야 한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광주시는 100% 국비 투입을 강변하며 버티다가 결국에 시비를 편성해 착공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시행 주체인 한국도로공사 측이 다시 협상 의향을 밝히면서 지방비 분

담 재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갑)의 질의에 합진구 사장이 ‘의견을 낼 용의가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뒤늦게라도 5대5 비율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데고, 취약한 광주시 재원에 숨통을 트여야 한다. 동광주IC-광산IC 구간은 광주 외곽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면서도 도심도로의 기능을 겸해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심 팽창에 따라 SOC 인프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해서 향후 기존 4차로가 6·8차로로 확장되고 노후 시설물도 전면 개량한다. 특히 용봉IC가 개설되면 호남고속도로와 제2순환로 등 간선도로 간 연결성이 강화돼 광역 흐름이 원활해지고, 용봉동 등 주변 지역은 만성적 혼잡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음터널 사업비 증액에 대해 정부 부담율을 전폭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 광주시와 도로공사가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 시민의 안전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현안이다. 국비를 확대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LPGA 골프 축제 대성공 글로벌 역량 과시한 전남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호남권 최초로 열린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로, 전남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 영암 출신 김세영이 정상에 올라 더 의미있는 피날레였다. 나흘간 찾은 갤러리 수는 6만여명에 이른다. 전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이 자긍심을 느끼는 성과를 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교통, 숙박, 안전, 언어 지원 등 모든 면에서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전남의 높은 진가를 알렸다. 홍보관에서는 남도국제미식박람회,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대형 행사를 소개하고, K-푸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시식과 관광 전시를 함께했다. JTBC 골프채널 등 글로벌 중계를 통해 해남의 청정 자연과 남도의 매력이 170여 개국에 전파됐다. 숙박·외식·관광업계 매출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이 돋보였다. 최고의 맛과 멋, 따뜻한 정을 나눴다.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지원 덕분에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섰다. 특히 김세영

은 1라운드부터 최종 4라운드까지 시종 선두를 내달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 상금 34만5천달러(약 4억9천200만원)를 차지했다. 통산 13번째이며, 대략 5년 만의 쾌거다. 한국 여자골프의 전성기를 이끌던 간판이다. 개인의 영광은 물론 지역민들도 안방에서의 화려한 부활에 환호했다.

아름다운 천혜의 전남에서 펼쳐진 국내 유일 LPGA 정규투어였다.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한치의 허점없이 준비한 결과로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한 상징적인 무대가 됐다. 앞서 김영록 지사와 서남권 6개 시군 읍·숙박·관광업계 대표, 함평골프고 학생, 체육 관계자 등 200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대회를 찾는 분들이 감동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친절과 미소로 환대해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확대에 파란불을 켰다. 지역 관련 산업 발전의 중대 전기를 마련했다. 글로벌 전남을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원했는데, 해냈다.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성공 개최를 축하한다.

기고



정 성 호
前 민주진보 광주시교육감 단일후보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중 하나는 가짜뉴스의 범람과 혐오 표현의 확산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증오의 언어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은 교육현장이라고 다를바없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나날이 이를 마주한다.

가짜뉴스와 혐오의 시대에 교육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면역력을 기르는 일이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거짓 정보와 혐오 표현이 난무할 때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판타지를 잃을 수 있다. “허위 정보의 확산에 대응하려면 법적 규제보다 시민 개개인의 정보 판단력과 책임 있는 참여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실제로 가짜뉴스에 대응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은 교육을 통한 대응이라는 것이 많은 교육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시대, 공교육이 사회 백신역할해야

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허위조작 정보를 법과 기술로만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면역력을 높인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교훈을 가장 잘 실천한 나라중 하나로 핀란드를 꼽을 수 있다. 핀란드는 일찍이 2013년 유럽 최초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교육정책으로 채택했고, 2019년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과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합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년층까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처법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을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유럽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에서 핀란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핀란드 사회 전체의 미디어에 대한 면역력과 사회적 회복력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다.

물론 핀란드와 우리의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짜뉴스와 혐오를 이기는 힘은 결국 교육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이러한 신념은 어쩌면 아픈 경험에서 나왔는지 모른다. 지난 정부시절 국가가 역사교육에 손을 대려 한 사건이 있었다. 정부가 특정한 역사관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한 것이다. 나는 그때 전국의 많은 역사 교사들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우리 역사를 왜곡된 틀에 가두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그 일로 해직교

사가 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교육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당시 나와 동료들이 끝까지 저항하여 결국 한국사 국정화 시도는 무산됐다. 그 경험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지키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겨우겨우 지탱되는 것임을, 그리고 학교는 그 용기를 키우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가짜뉴스와 혐오에 맞서는 교육의 역할은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연대와 공감의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혐오는 타인에 대한 몰이해와 두려움에서 나오기 쉽다. 그렇기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가짜뉴스와 혐오의 시대에 공교육은 사회의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의심할 줄 아는 지성과 배려하는 마음을 함께 길러주는 것,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법과 제도는 뒤따라올 뿐, 결국 양상서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힘이다.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을 직시하는 눈, 가슴으로 공감하는 마음, 용기 있게 말하는 목소리를 지닌 시민으로 자라도록 돕겠다라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노쇼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닌 경제적 타격

기 주의보’를 내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기관 대표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선입금이나 대리 구매 요청은 단호히 거절하라는 안내 문구를 강조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노쇼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로, 재료비와 인건비 손실은 물론, 손님과의

신뢰가 무너져 원만한 관계 역시 유지가 어렵다.

노쇼 사기를 막기 위해서 업주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예약은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지역 상권과 사회의 신뢰도 함께 지켜질 것이다.

〈신민경·해남경찰서 수사와 형사2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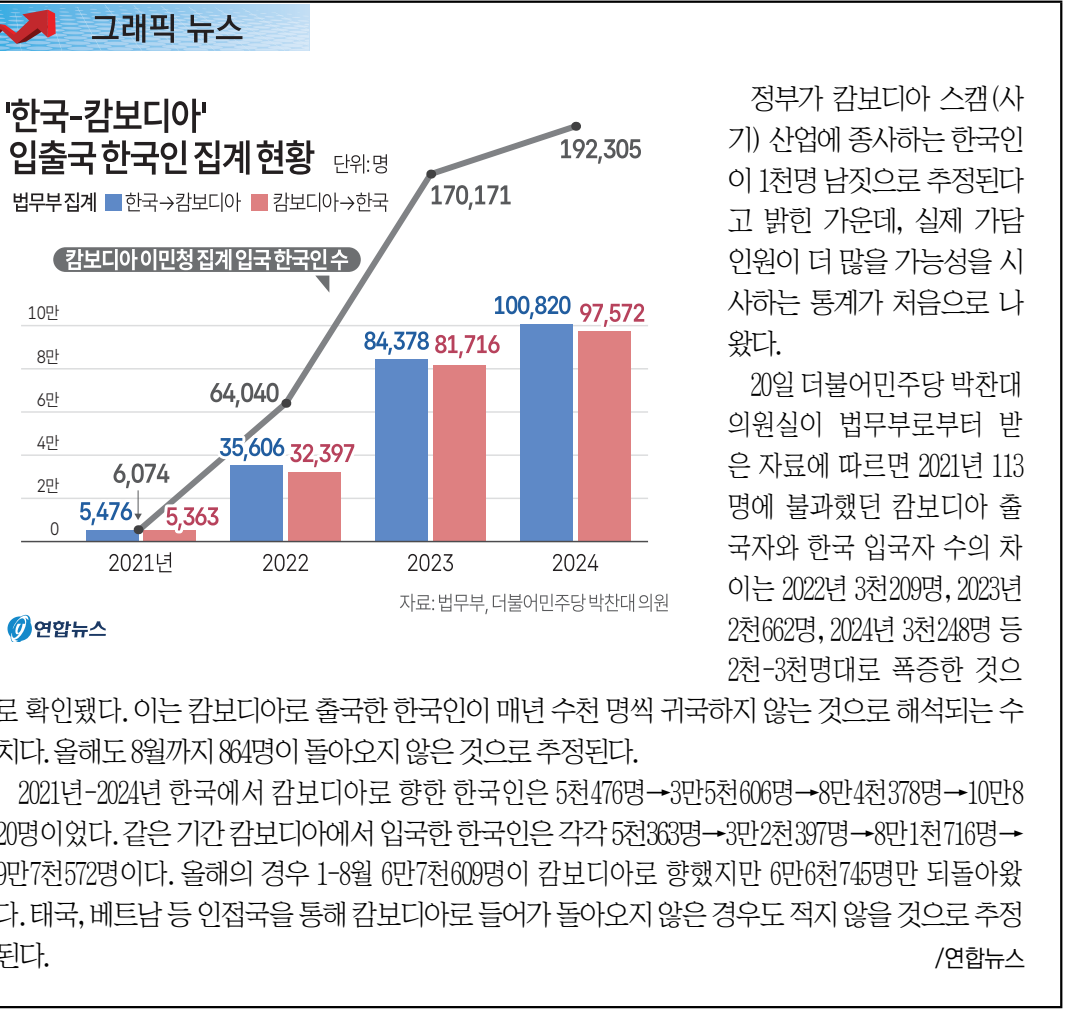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최근 전남 곳곳에서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연예인 소속사 등을 사칭,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목포 M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에서만 13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단순한 예약 부도가 아닌 대량 주문을 미끼로 선입금이나 대리 구매를 요구, 잠적하는 수법이다.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노쇼 사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정치부	650-2030	사신부
	경제부	650-2050	논설실
	사회부	650-2040	T.V.본부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편집국	650-2070	경영지원부
	편집국	650-2011	사업본부
	편집국	650-2007	업무국
	편집국	650-2020	업무국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